

CHUKSAN News

축·산·소·식

[한우]

한우협, 목동구장서 '아리랑 목동 한우데이' 개최

넥센 히어로즈 이승용 선수, 한우사랑 홍보대사 위촉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넥센 히

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2010 아리랑 목동 한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2010 아리랑 목동 한우데이'는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 직원들을 초청해 여가생활 활성화와 기업 내 화합을 도모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전국한우협회는 효성그룹 임직원 1,000명과 목동 리틀야구단 선수들을 초청해 한우 떡갈비 도시락 세트와 음료를 제공했다. 또 경기 시작 전 목동 리틀야구단 어린이 시구와 임관빈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의 시타, 효성그룹의 한우사랑기업 위촉패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넥센 히어로즈의 간판 타자 이승용 선수를 한우사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 밖에도 야구장을 찾은 일반 관중들에게 한우버거 500여 개를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사다리타기, 한우 퀴즈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추첨을 통해 한우 불고기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함께 제공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이번 한우데이 행사에는 특별히 어린이 야구단 선수들을 초청해, 기업체 및 일반 관중들의 여가생활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프로 야구 발전에도 보탬이 되길 기원하는 자리로 준비했다"며 "더운 날씨가지만 초청 관중 뿐 아니라 일반 관중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과 함께하는 한우데이 행사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우사랑 후원 행사로, 지난 7월 30일에는 삼성라이온즈 '달구벌 한우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라이브뉴스·곽동신·al@livesnews.com

[양돈]

이번 명절에는 '한돈햄 선물세트'로

이병모 위원장, 기자간담회 통해 자조금 인상론 의견 제시



한돈햄 TV/라디오 광고가 오는 20일 약 한달간 소비자들과 만난다.

양돈자조금관리

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10일 aT센터 한돈햄 TV/라디오광고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추석·구정 등 민속 고유명절에 우수한 햄 선물세트를 나누는 전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TV/라

디오광고 중인 한돈 광고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날 이어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는 양돈자조금의 주요사업인 한돈 홍보 캠페인, 한돈함 선물하기 캠페인, 온라인 판로 저변확대를 위한 G마켓 프리미엄 한돈관 개설 및 지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거출 전담반 활동사항, 양돈자조금 재원 확대 방안, 2011년도 사업계획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출 전담반 활동으로 2009년 이전 미수금 715백만원 중 420백만원(59%) 회수로 2009년 거출율이 89.4%에서 93.6%로 상승했으며 2010년 연간 목표액 81억원 중 상반기에 46억원(57%)이 거출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연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가 정체된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홍보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농가거출금의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자조금 인상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양돈인들의 심도있는 고려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뉴스 · 홍귀남 · xd4078@hanmail.net

양계

육계농가 전문경영인으로 발돋움

양계협, 육계농가 대상 '전문육계 CEO과정' 교육 실시

충남·북 지역 45명 육계농가 10월말까지 10주간

급변환경 적응할 전문지식·우수축산물 생산 기어

자조금 사업 일환·산업 발전위해 자조금 동참 당부

육계사육농가가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전문육계CEO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11일부터 전국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충남 홍성 소재 축산회관에서 교육(사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육계농가로 하여금 합리적인 농장경영방식을 습득하고 미래 산업·친환경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을 함양, 전문 CEO로서 성공적인 경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육계농가들은 이번 CEO과정을 통해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양기술, 유통마케팅, 및 농장경영에 필요한 재무와 회계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를 통해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총망라하는 지식인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물론 생산성 증대 및 우수축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충남·북지역 45명의 육계농가들은 오는 10월말까지 10주간 40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첫날 이홍재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기본 프로그램외에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창조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육계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육계농가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박태원 양계협회 충남도지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전문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경영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전문경영인 교육은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리 육계농가가 적극적인 자조금 동참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호 반석기금진료연구소장은 ‘질병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호 소장은 "생산성이 좋은 농장들은 계사내외부의 청결상태부터 차이가 난다"며 "외부 주차장 운용은 물론 방역복 착용·수세의 의무화, 그리고 차량내부 및 철저한 대인소독 등 농장 진입 자체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장내 질병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작업자 및 기구 등의 소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약주 및 폐사계의 철저한 색출관리와 함께 부검장소를 별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소장은 특히 병아리의 강건성을 강조했다.

종계관리 뿐 만 아니라 종란보관 및 약추선별, 수송과정 등에서 병아리 품질 저하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종계의 건강 및 면역상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보장할 때 농장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노금호 기자·kumhof234@naver.com

낙농

2010 한국낙농대상 수상자 3인 확정

유가공·이흥구 낙농경영·이경용 낙농과학기술·박용호씨 선정



▲2010 한국낙농대상 수상자 3인 - 2010 한국낙농대상 첫 수상자로 이흥구(유가공부문), 이경용(낙농경영부문), 박용호(낙농과학기술부문) 3인이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2010 한국낙농대상'의 영예로운 첫 수상자로 이흥구(유가공부문), 이경용(낙농경영부문), 박용호(낙농과학기술부문)

3인이 선정됐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10일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 한국낙농대상' 수상자로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낙농경영), 이흥구 前 한국유가공협회 부회장(유가공), 박용호 서울대 교수(낙농과학기술)를 각각 선정했다.

'한국낙농대상'은 국내 낙농유업분야 산업발전과 제도개선 및 소비증진 등에 이바지한 업계 인사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할 미래지표로 삼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그 첫 해이다.

이번 '2010 한국낙농대상'은 지난 5월 18일 시상요강 공고이후, 3개부문 9명의 후보가 추천되었으며, 낙농분야 각계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7.12일)·2차(8.10일)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가 확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각 부문별 수상자의 선정이유로는,

▲유가공 : 이흥구 (당 79세, 전 한국유가공협회 부회장) : 41년간 낙농분야정부·유업계·유가공협회 등에 두루 봉직해오면서 산업근대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은 물론 원유수급안정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합리적 위생등급기준 마련과 우유 소비확대, 해외유가공기술의 국내전파등으로 유가공발전에 기여

▲낙농경영 : 이경용 (당 49세, 당진낙협조합장) : 특장경영과 당진낙협 조합장직을 병행해오면서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자급생산 주도, 현장중심의 맞춤형 유질 향상지도, 가축분뇨공동자원화등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낙농경영 모델을 제시하는등 산업전반 발전에 기여

▲낙농과학기술 : 박용호 (당 56세, 서울대학교 교수) : 32년간 정부 및 학계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해오면서 유방염 백신 개발과 항생제 내성분아등의 독보적 연구로 국내 유질향상과 낙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은 불

론, 산업체와 연계한 고품질 안전우유 생산과 HACCP 적용 연구등으로 한국 낙농연구의 우수성을 해외에 전파하는등 산업발전에 기여

한편, 낙농진흥회는 오는 8월말경(세부일정은 추후 확정) 각계 대표와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0 한국 낙농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트로피와 2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며, 낙농과학기술부문 수상자인 박용호 교수는 2010 IDF 대상 한국측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 광동신 · a1@livesnews.com

양봉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낭패 전국서 꿀 수확 격감 ... 원인불명·치료제 없어 답답 ... 농가 "법정 전염병 지정을"

'토종벌 괴질'로 통하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토종벌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토봉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토종벌에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이 지난해 봄 강원지역에서 처음 대규모로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봄·여름에 걸쳐 강원지역은 물론 경남, 전남·

북, 충남·북 지역까지 확산돼 농가 피해가 극심하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은 애벌레가 벌통 속에서 죽어버리는 일반적인 증상과 달리 애벌레가 허영게 변하면서 벌통 밖으로 나오거나, 입벌이 병에 걸린 애벌레를 물고 나와 벌통이 텅 비어 꿀 수확량이 70~90%나 격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함양에서 400통의 토종벌을 기르는 정연대씨는 "올해 90% 이상이 피해를 입어 증봉(씨벌)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현재까지는 치료약이 없어 예방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예방대책으로 ▲삼중염 계열 소독제(라이프가드) 등로 벌통 주변과 표면, 사육용 기구 소독 ▲반경 2km 사이의 토종벌 농가 방문 자제 ▲감염된 벌통 즉시 격리·소각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토종벌 사육 농가가 매우 영세해 감염된 벌통을 모두 없애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벌통의 세력이 우수하면 발병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벌꿀·설탕물을 추가로 공급하고, 비타민·무기질·프로폴리스 등을 설탕물이나 꿀물에 타서 벌에게 직접 뿌려 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바이러스 전파원인 또한 명확하지 못하다. 강승원 검역원 연구관은 "5~6년 전부터 토종벌에서 소규모의 발병이 이어진 가운데 올해 봄철 이상기온으로 토종



별 생육이 부진한 상황에서 토종별 분양과 일부 토종별 농가의 이동양봉이 질병을 확산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종별 농가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종봉을 육성·보급하고, 낭충봉아부패병을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농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차례에 걸쳐 관련기관 회의를 가졌지만 낭충봉아부패병을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검역원(면역증강제 개발)·토봉협회(민간요법 홍보)·지자체(소독제·영양제·항생제 지원) 등이 협력하기로 했지만 '양봉산업 종합발전대책' 중 병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대출금 상환연기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토봉협회 역시 전국적으로 발병이 확산된 만큼 청정 종봉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농가의 고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기타가축 통계'에 따르면 전국 토종별 통수는 전체 벌통수의 17% 정도인 31만4,511개로 적지만 사육 농가수는 전국 양봉 농가 3만4,102곳 중 41%인 1만3,883농가에 달한다.

농민신문·류수연 기자·capa74@nongmin.com

양록

2010년도 제차 사슴 및 녹용 가격 조사위원회 개최

최근 사슴 결핵병과 관련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슴 및 녹용 가격 조사위원회가 총 10명의 조사위원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7일 제2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회는 질병 보상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자 2009년 9월부터 사슴 및 녹용 가격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매일 사슴 및 녹용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어 각 행정기관의 보상금 책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슴 결핵병과 관련한 살처분이 늘어나 보상금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슴 및 녹용가격 조사방법과 기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현재 조사되고 있는 엘크, 레드디어, 꽃사슴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액 산정 기준의 폭을 전국 양봉농가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참석 의원 모두가 동의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8월 21일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 됐다. 변경하고자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슴결핵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현재 100%에서 5/3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본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록 농가의 현 상황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